

1910년 국권피탈 울분 암각문, 장흥 수리봉에서 찾았다

장흥암각문조사단, '위원량 망곡서' 칠언절구 28자 발견
“조성 연대 분명히 새겨져 있어 사료적 가치 매우 높아”

장흥 부산면 수리봉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은 암각문이 발굴됐다. 장흥암각문조사단이 수리봉 암각문을 비롯, 6곳에서 암각문을 찾아냈다.

특히 수리봉 '위원량 망곡서(魏元良 望哭書)' 암각문은 1910년 한일합병 국치 소식을 접한 뒤 암각한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군 부산면 내안리 내동과 구룡리 자미마을 뒷산 정상인 수리봉 암벽에 새겨져 있다. 바위 면에 광곽을 얇게 파고 평탄하게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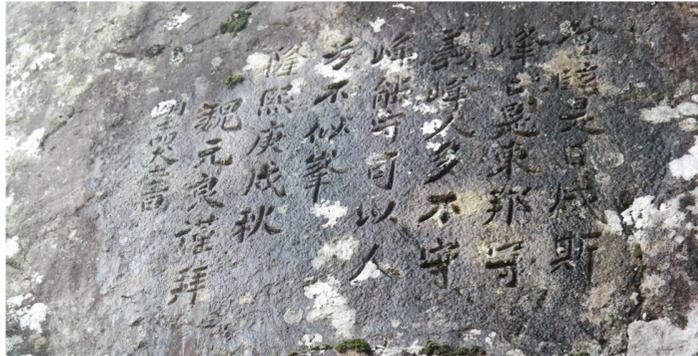
성한 다음 해서체 증서로 쓴 칠언절구 '登臨是日感斯峰(오늘 올라와 이 봉우리에서 느끼나니) [峰]是東邦守義峰(이 봉우리아말로 동방의 의를 지킨 봉우리네) 人多不守峰能守(사람 많아도 못 지킨 것을 봉우리는 지키니) 可以人多不似峰(많은 사람도 이 봉우리만 못하누나)' 28자를 음각했다.

좌측에 '隆熙庚戌秋 魏元良謹拜 望哭書(옹희경술추 위원량근배 망곡서)'라는 관지를 증서로 음각했다. '옹희 경술년 가을에 위원량이 삼가 절하고 곡하며 쓰다'라는 뜻인데

옹희 경술년은 경술국치의 해인 1910년이다. 광곽의 규모는 가로 85cm 세로 50cm, 글씨 하나의 크기는 가로 8.5×세로 9.5cm 정도다. 위원량(1882~1945)은 장흥의 유학자로 초명은 종량(鍾良), 자는 여진(汝眞), 호는 회은(晦隱)이다.

이번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흥순석 강남대 명예교수는 “위원량 망곡서 암각문은 1910년 한일합병의 국치 소식을 접한 장흥지역 유림 위원량 선생이 수리봉 정상에 올라와 나라 잃은 울분을 칠언절구 한시에 담아낸 것으로, 시를 짓고 암각문을 조성한 연대가 분명히 새겨져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현장조사에서 새로 발굴된 자료로 위원량 암각문 외에도 부춘정 암각문 3건,



월산재 석비 2건 등이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문화원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장흥관의 역사문화자원과 기록

유산을 발굴·정리해 지역전통문화 보존·계승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획취재본부

“지역갈등 지혜롭게 푼다”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예비배심원 100명 위촉...군정 소통의 장 마련 기대



해남군은 중요정책과 대형 국책사업 유치 등 다수의 이해가 충돌하는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군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군민배심원제는 민선7기 주요 공약사항으로 군정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 토론과 합의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전문가와 지역개발, 문화관광 등 5개 전문분야의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심의대상결정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전에 대해 토론을 거쳐 평결하는 군민 참여형 의사결정체

도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군정의 중요사안을 군민과 함께 숙의하고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열린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17일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관정관과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군민예비배심원 등으로 모두 108명을 위촉했다.

앞서 군은 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와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군민배심원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예비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군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100명을 선정했다.

또 안전상정의 공정성을 위해 군의회 추천과 법률관련 전문가, 군민단체 대표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대상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판정관으로 법률전문가를 선정했다. 만 19세 이상의 군민은 5명 이상의 연서로 안전을 신청할 수 있고 심의대상으로 상정된 안전은 군민법정을 구성해 군민배심원 회의에서 평결한다.

해남군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내실있는 군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해 12월 중 모의법정을 열어 예행연습을 할 계획이다.

기획취재본부

‘전남대병원발’ 광주 집단감염 2위 대부분 20~30대로 확산속도 빨라

8·15서울도심집회발 118명

전남대학교병원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3명을 기록해 그동안 광주지역 집단감염지 2위에 올랐다. 특히 전남대병원발 코로나19는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았으며 사회활동이 활발한 20~30대에 집중돼 n차감염 속도가 빠르다. <관련기사 9면>

18일 광주시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전국 16번째)가 발생한 이후 이날 오후 2시 기준 9개월여동안 지역에서는 총 58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최근 집단감염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전남대병원발이 43명이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 13일 1명(광주546번) 이후 14일 5명(광주548~550번·555·556번), 15일 3명(558~560번), 16일 10명(561~565번, 567·569번, 전남258·259번), 17일 10명(570번·573~577번, 579·580번, 전남목포 2명), 이날 오후 2시 기준 14명이 추가됐다. 전남대병원발 확진자 수는 올해 발생한 지

역 집단감염지 2위의 기록이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은 사랑제일교회와 8·15서울도심집회발로 상무지구 유흥주점(23명) 포함 총 118명이 감염됐다. 이어 전남대병원발이 2위이며 3번째로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은 목욕탕 요양원 확진으로 변진 광주사랑교회에서 41명이 나왔다.

금양오피스텔발 확진자가 32명이며 일곡중앙교회 30명, 광주 모 시장에서 26명, 광주교시학원·베드민턴 동호회 각각 14명이다.

최근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확인되는 곳은 상무지구 유흥시설 15명, 광주교도소 10명 등이다.

해외발 감염은 79명이며, 타지역 통한 확진자도 62명이다.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는 전남대병원의 경우 사회활동이 많은 20~30대가 주로 감염되고 있어 확산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집단감염이 확인된 곳은 일상생활을 할 때 마스크를 잠시 벗는 사이 감염 되고 있으며 10명 중 7명이 20~30대이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함평농산물!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생산... 소비자의 건강까지 생각합니다.